美 유통망 넓히고 맞춤 종자 키운다… 농협, 북미 공략 본격화

강호동 회장 LA 현지법인 사업 점검
H마트 등 유통사와 판매 확대 논의
판로 확대·현지 맞춤 종자 등 개발
금융 계열사 시장정보·네트워크 지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마트를 방문해 농협 농축산물의 현지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이 북미 지역에서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유통망 확대와 신규 판로 확보를 비롯해 현지 맞춤형 종자 개발에도 주력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캘리포니아를 찾아 현지법인들의 최근 사업 동향을 살폈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현지 소재 범농협 계열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자리에는 경제지주 계열사와 금융지주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각 법인의 사업 현황 및 시장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경제지주 쪽 NH농협무역(농협아메리카), NH농우바이오(농우시드아메리카), 농협사료(NH-HAY)와 ▲금융 부문의 NH농협은행(뉴욕지점), NH투자증권(뉴욕 현지법인)이다.

NH농협무역은 미국 내 농식품 유통망 확대와 신규 판로 개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NH농우바이오는 미주시장 맞춤형 종자 개발과 영업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또 농협사료는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은 현지 금융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타 계열사에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미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시장변화 대응 방안, 경제·금융계열사 간 협업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미국 현지 주요 유통업체 경영진과도 면담을 가졌다. H마트를 찾아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 확대 및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남체인에서는 한인·아시안 소비시장의 변화 및 소비자의 최신 선호도 등을 중점으로 파악했다.

또 갤러리아마트 올림픽점을 방문해 농식품 판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반응 등을 살폈다. 농협은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농협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강 회장은 "미국은 농협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시장으로, 현지 사업 역량과 유통 네트워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인과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식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사업 부문에선 유통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6일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농산물유통개혁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지역농협, 외부전문가,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농업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유했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은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 구현을 위한 유통개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농업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은 전속출하를 중심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둔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하는 게 목표다. 조합원-지역농협-농협경제지주로 이어지는 계열화를 강화하고, 전속출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판매 기능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이 농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주병기 "기업 조사 회피 여지 없애겠다"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내부 규칙 개정 방안 검토
쿠팡·한화 효력정지 결정 후속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 등이 제기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들의 조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또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1심 법원 기능을 겸하는 공정위 수장이 상급심 판단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 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관련해서도 "(기업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했는지 솔직히 굉장히 의문"이라며 "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회피 방지를 위한 내부 규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제 조사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벌레 '고소애' 추출물로 노인 근력 지킨다

농진청, 10년 연구 끝 기능성 원료 등록

갈색거저리 애벌레 '고소애'의 분해물. /농진청

곤충에서 추출한 성분이 사람의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여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일본 여성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등 고령화가 사회 깊숙이 파고든 상황에서 이 성분이 널리 각광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갈색거저리 애벌레'를 고단백 영양제로 활용할 방도를 찾아냈다.

농촌진흥청이 21일 소개한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고소애' 또는 '밀웜'으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소애의 가수분해물(효소 등을 이용해 단백질을 미세 펩타이드 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것)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것.

농진청은 지난 2016년 3월 식품공전에 고소애를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했다. 이후 새로운 단백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수술 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고소애가 근 감소 억제 및 면역세포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고소애 셰이크를 섭취토록 한 결과 단백질 섭취율이 높아졌다. 아울러 위상각(세포막의 구조적 완전성, 세포 건강도,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바이오 지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데다 근육량 확대, 항암부작용 완화 등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 올라도 상한 유지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2022년 3분기 이후 18분기째 상한
산정상 필요조정단가는 7.34원 기록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수준에서 동결된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이 적용되면서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6년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최대치(+5원)를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고정하고 여타 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 가구 및 산업계의 4분기 전기요금 부담은 3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의 유연탄, LNG, BC유 등 무역통계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6년 6~8월 세후 평균 무역통계가격을 적용한 실적연료비는 kg당 549.64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kg당 494.63원)를 상회했다.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kg당 55.01원)에 변환계수(0.1335kg/kWh)를 곱한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7.34원으로 계산됐다. 산정 공식상으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조정단가를 상한선인 +5.0원/kWh로 결정했다.

연료비 상승분이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의 재무적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추석 귀성길 KTX 타면 탄소배출 78% 감소

기후부, 서울~부산 1인 왕복 8.8㎏

추석 연휴 귀성길에 자가용 대신 고속철도(KTX)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8%까지 줄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오전 11시 ~ 오후1시까지 서울역 2층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대중교통 타고 기후행동, 친환경운전으로 함께 하는 귀성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인 가족이 휘발유 중형 SUV로 이동할 경우 1인당 왕복 40.33㎏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KTX를 이용하면 1인당 배출량이 약 8.8㎏으로 급감한다. 4인 가족이 귀성길 수단을 KTX로 변경할 경우 왕복 기준 총 126.12㎏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셈이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트렁크 비우기 △3속(과속·급가속·급감속) 하지 않기 △전기·수소차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4가지 친환경운전 수칙 실천 투표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 홍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실천운동은 귀성길 국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